

한은, CBDC 도입 속도... “하반기 금융기관 연계 실험”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디지털 전환, 현금 감소세 등 대응 차원 CBDC 연구·개발 정기인사로 준비 라인업 구축

국내 금융시장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본격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CBDC 도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특히 디지털 화폐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졌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8월 임시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은 CBDC 도입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금 이용 감소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CBDC 연구·개발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한은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CBDC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념검증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모의실험 등도 진행했다. 모의실험에서는 가상 실험환경 조성, 기본



/한국은행

기능(발행·유통·환수 등) 구현과 확장 기능(오프라인 결제 등) 구현, 정보기술(IT) 신기술 적용 가능성 검증을 실시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CBDC 연계실험도 수행한다. CBDC 도입에 따른 제도적 이슈와 함께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은의 주요 책무와 역할에 미치는 과급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간다는 전략이다.

한은은 최근 정기인사에도 이를 반영했다.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후 첫 정기인사다.

한은은 이번 인사에서 이한영 전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도 1급 승진과 함께 금융결제국장으로 발탁했다. 이 선임 국장은 IT 발전 등 지급결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결제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고, CBDC 도입을 준비할 책임자라는 평가다.

이처럼 한은이 CBDC 발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등에서 올 금융혁신 8대 과제 중 하나로 CBDC를 꼽으면서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

혁신 8대 과제: 규제·감독, 빅테크, 가상자산, CBDC, 가계부채, 녹색금융 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은) 특히 법정통화는 지급결제수단의 원천인 동시에 본원통화로서 통화신용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며 “향후 CBDC가 도입되어 지급결제 및 통화신용정책의 구조가 바뀌면 민간은행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는 CBDC 도입에 따라 ▲경제주체의 지급결제 관련 비용과 시간 절감 ▲통화신용정책의 보다 명확한 효과 발생 ▲은행의 역할과 기능 및 건전성에 큰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야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는 “전환기에 발생하는 시장의 부작용과 혼란을 일정부분 수용하되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하나은행

큐브엔터와 메타버스 협업

하나은행은 큐브엔터테이먼트와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메타버스 ‘더 샌드박스’ 내 큐브엔터가 보유한 메타버스 공간인 K-빌리지에서 큐브엔터와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을 진행한다.

우선 하나은행은 K-빌리지 내 가상 브랜치를 개설하여 환전·금리 우대 쿠폰 제공 등 특화 금융서비스와 은행이 후원 중인 축구, 골프 등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큐브엔터와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이벤트를 공동 기획, 진행하여 양사의 영업지원 활동 공간으로 활용은 물론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신한은행

‘급여클럽 탐구생활’ 이벤트

신한은행은 소득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멤버십 ‘급여클럽’의 누적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몰리의 급여클럽 탐구생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급여클럽’은 연금·용돈·생활비 등 다양한 소득을 급여로 인정해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금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 혜택 ▲마이신한포인트를 추첨 지급하는 ‘월급봉투’ 서비스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 부여 등 재미와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디지털 멤버십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급여클럽’ 가입 고객이 8월에 소득 이체를 하고 9월에 월급봉투를 받은 고객 중 1만1111명의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1백만 마이신한포인트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승용 기자

휴면카드 4분기째 상승... ‘체리피커족’ 키우나

(1년 이상 사용실적 없는 카드)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

여신금융협, 2분기 총 1428만장 카드사 매출 비용 상승 등 타격 “비대면·현금성 마케팅에 증가 카드사, 기존고객 혜택 등 필요”

휴면카드가 4분기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카드란 신용카드를 만든 이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다. 휴면카드가 증가하면 카드사의 매출 비용이 증가한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분기 휴면카드는 1428만4000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카드 증가는 4분기 연속이다. ▲2021년 3분기 1198만3000장 ▲2021년 4분기 1284만8000장 (7.21% ↑) ▲2022년 1분기 1373만

6000장(6.91% ↑) ▲2022년 2분기 1428만4000장(3.98% ↑) 이다. 분기별 평균 76만7000장(6.03%)씩 상승했다. 매일 8500여장의 휴면카드가 발생하는 셈이다.

2분기 각 회사별 휴면카드의 수는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중 ▲KB국민카드(174만5000장)가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카드(163만5000장) ▲신한카드(163만3000장) ▲현대카드(157만8000장) ▲삼성카드(135만9000장) ▲우리카드(125만8000장) ▲하나카드(111만2000장) 순이다. 각카드사별 휴면카드의 수는 지난 1분기 롯데카드가 174만3000장으로 가장 많았다.

휴면카드의 경우 카드발행량과 함

께 증가한다. 때문에 전체 발행 카드 대비 휴면카드 비율이 중요하다. 7개 전업카드사의 휴면카드 비중은 ▲하나카드(13.99%) ▲롯데카드(13.74%) ▲우리카드(12.77%) ▲KB국민카드(10.9%) ▲현대카드(9.16%) ▲삼성카드(8.74%) ▲신한카드(7.93%) 순이다.

휴면카드 증가는 카드사의 매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카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투입하는 모집, 개발, 플레이트 비용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면카드 증가의 주 원인으로는 카드사의 현금성 마케팅이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를 생산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으

로 손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게하는 만큼 현금성 혜택은 체리피커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카드사 또한 기존 고객의 혜택을 늘리는 등의 이벤트를 통해 휴면카드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성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다. 네이버 페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만들면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매출 비용 증가는 회사에 손해보는 다다오지만 과거 모집인에게 사용한 비용을 고객들에게 나눠준 것이다”라며 “어떤 제도든 악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임직원 ‘나에게 쓰는 편지’ 이벤트

우리은행, 영업목표·다짐 적어보내

우리은행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하반기 영업목표와 다짐을 스스로에게 적어 보내는 ‘나에게 쓰는 편지 감성 터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는 평소 임직원들의 자율 영업문화와 자발적 동기부여를 강조해 온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뜻이 담겨 있다.

‘나에게 쓰는 편지’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내가, 12월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주제로 전 임직원이 본인의 영업 다짐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행내 시스템을 통해 편지에 작성해 전송하면 연말 본인에게 회신되는 방식이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 스스로 목표를 세우실천하고, 달성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행내 시스템으로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은행

한 목표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자율 영업문화 선순환 체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직원 개개인이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공(Small Success)을 성취해 우리은행의 성공적인 도약(Great Move)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협중앙회, 상반기 당기순익 2883억 달성

전년비 21% ↑... 총자산 134.4조

신협중앙회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28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재무 현황에서는 지난해 말 대비 ▲총자산 134조4000억원(8.0% ↑) ▲여신 102조4000억원(9.2% ↑) ▲수신 121조6000억원(8.8% ↑)으로 나타났다.

전국 873개 조합의 평균 자산은 1539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114억원 증가했다.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18곳이 늘었다. 3000억원 미만 조합은 9곳이 감소하면서 소형조합과 대형조합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조합은 대구

청운신협이다. 2조163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경기 장안신협이 72억8000만원으로 최대 실현조합으로 나타났다.

3000억원 이상 자산규모의 대형조합은 117개 조합(13.4%)으로 전년 말 99개 조합(11.3%)보다 늘었다. 3000억원 미만 소형조합은 171개 조합(19.6%)으로 전년 말 162개 조합(18.6%) 대비 감소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늘 곁에서 평생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신협을 찾아주시는 모든 조합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BNK경남은행

금리상한 주담대 상한폭 인하

BNK경남은행은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연간 금리 상한폭을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한폭은 지난 1일부터 기존 0.75%포인트(p)에서 0.5%p로 0.25%p 조정됐다.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취급 후 최대 7년까지 연간 금리 상승폭이 적용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간 금리 상한폭을 제한해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상품이다. 대출 실행 후 최대 7년까지 매년 금리 상승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묶이게 된다.

경남은행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에 경남은행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도 금리상한 주담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구남영 기자